

'기우는 석탑' 바로 세워야 한다

불교유적을 조사하는 박물관과 연구소의 수가 급증한 것을 비롯해 올 한 해 동안 불교 문화재에 대한 고계 안팎의 관심은 여는 해와는 달랐다. 물론 지역 문화권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게 대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유물 발견과 재조명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비지정 불교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지만, 정작 국회의 심의 과정이 늦어져 도난이 급증하는 양상도 있었다. 이와 함께 석조 문화재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학계의 주장도 잇따랐다. <편집자>

2000 결산 - 문화재

석조문화재 보존 '비상'

불교유적 조사 활발

●... 석조 문화재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관련 학계에서 석조 문화재의 실상을 파악하고,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석조 문화재는 수백여 년 간 야외에 노출된 탓에,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불교계에서는 석조 문화재의 상당수가 불교문화재라는 데 주목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정부는 최근 국보 제20호인 불국사의 다보탑을 비롯해 국보 제21호인 석가탑과 국보 제112호인 양북면의 갑은사지 사탑 등 신라시대 국보 석탑 3기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세웠다. 이들 대부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불교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가 활발한 한 해였다. 내용도 사찰 문화재 조사와 폐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등 다양하다.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월정사 성보조사에 이어 화엄사 성보조사에 들어갔고, 용인 지역 폐사지에 대한 지표·시굴조사를 실시했다. 위덕대 박물관 불적조사단은 경남·북 일대와 부산, 울산, 대구지역 폐사지 지표조사에 주력해, 경주와 포항에서 '안계사지'와 '옥명사지'를 새롭게 발견했다. 또한 경주시 모량리 절터에서 국내 최고(最古)의 전탑지를 확인했다.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은 원주 법천사지를 조사했다. 전주 및 광주박물관은 지역 소재 사찰 문화재를 조사했고, 광주박물관은 일본 류슈 지방 소재 백제 유적을 조사했다.



○조계종 부설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지표조사를 하는 모습.

사지 역사성 재조명

●... 황룡사지, 화암사지, 천왕사지 등 주요 사지에 감춰진 역사적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황룡사지 일대를 조사한 경주문화재연구소는 폭 23미터의 대형도로를 발견했다. 이 도로는 6세기 무렵 황룡사 창건과 동시에 도시 계획이 이루어진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화암사지 역시 왕실 사찰보다는 왕궁으로써의 위상이 더 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곳의 배수로 시설 등의 배치가 왕궁의 그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또 '왕(王)', '궁(宮)' 등이 새겨진 청기와와 다량 출토됐다. 이외에도 경기도 하남시는 "백제 초기 도읍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천왕사지 발굴에 들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지정문화재 도난

●...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시·군에서는 향토유적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도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2월 현재 도난된 불교문화재의 수는 20여 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문화재 관계자들은 "사찰 내 방범시스템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각지대가 많아 도난에 무방비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 관계자들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 틈을 노린 절도범이 극성을 부린 탓도 있고, 시·군에서 만든 '향토유적조례' 역시 처벌 기준이 없는 것에서도 성보 도난의 원인을 찾았다.

성보박물관 잇단 개관

●... 사찰이나 시·군에서 불교 문화재를 전시하는 박물관과 전시관을 잇따라 건립했다. 경주 황룡사지 유물 전시관과 불국사 유물 전시관, 석굴암 유물 전시관, 영천 은해사 성보박물관, 동화사 성보박물관, 수덕사 근역성보관, 선암사 성보박물관 등 9개의 유물 전시관이 올해 건립됐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문화재의 보존은 물론 국내·외국인에게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교문화 우수성 인정

●... 산 전체가 불교 유적인 남산(사적 제311호)을 비롯해 경주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 세계유산위원회(WHC)가 11월 29일 호주의 케언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경주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관계는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 개발로 인한 파괴의 위험을 받고 있는 남산과 월성, 대동원, 황룡사, 산성지구 등 5개 지역을 864만평 일대의 보존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coo@buddhan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③ 성재의 수덕사·청룡사 편액



○예산 수덕사 조인정사의 <수덕사> 편액.



○안성 청룡사 <명부전> 편액.

수덕사

철보문 단청 변죽 달아

명부전

전각 비해 규모 작은편

성재 김태석(檀齋 金台錫, 1875~1953)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동했던 서예가이자 전각가로 일찍이 중국, 일본 등을 왕래하며 견문을 넓히고 작품 활동도 하였다. 그가 중국에 머물던 38세에 당시 총통이었던 원세개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국무원 비서직에 있으면서 옥새(玉璽)를 비롯한 수많은 인각(印刻)을 하였다. 이후 그는 15년 동안 중국에 체류하며 많은 활동을 하였고, 귀국 후에는 '대동한목회'를 조직하여 집담회를 여는 등 서예와 전각을 통한 후학 양성에 힘썼다. 성재는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를 특히 잘 썼으며, 해서(楷書)는 안진경체를 본받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정학교, 유한익, 강진희, 오세창 등과 함께 근대 전각의 대가라고 꼽히며, 864만평 일대의 보존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coo@buddhan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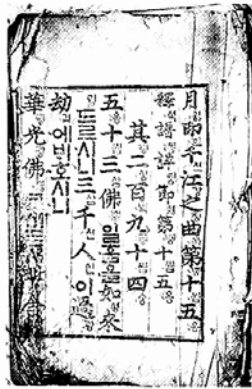
예산 수덕사 청련당 아래쪽, 조인정사에 걸려 있는 <수덕사> 편액에는 '불기이천구백칠십이년 칠십이수 성재 김태석(佛紀二千九百七十二年七十七 檀齋)'이라고 적혀 있다. 이 편액은 전각에 비해 그 규모가 아주 작은 편인데, 변죽을 이음으로 한 것이 그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 편액의 글씨를 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성재가 중국에서 귀국하여 활동하던 1950년을 전후한 때일 것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를 쓴 인종(溍人風)의 유연(柔軟)한 소전(小篆)이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월인석보 제15' 등 4건 보물 지정

'조상경' '진언집' 등 부산시 유형문화재

훈민정음으로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불경언해서인 <월인석보> 제15가 지난 19일 새롭게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제745-(10)호로 지정된 <월인석보> 제15는 조선 세조 5년인 1459년에 목판으로 간행된 인쇄본으로, 낙장(落張)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여서 15세기 국어국문학 연구는 물론 불교사와 서지학 연구에 있어 귀중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5월 11일 전북 순창 태고중 구암사에서 발견된 후 6개월만에 보물로 지정된 <월인석보> 제15는 현재 보물 제745호로 지정된 월인석보 중 빠진 권수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가로 22cm, 세로 36cm 크기로 비단과 종이를

섞어 만든 종이에 인쇄됐다. 직지사에 소장된 가로 23.3cm 세로 9.3cm의 '백지금니금강보문발원합부'는 고려 공민왕 20년인 1371년 비구니묘지스님과 묘수스님의 시주에 의해 사경된 것으로, 필사본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있어 그 연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은 일본인 다카하라 히미코의 기증 유물인 고려시대 범종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산 일백에 새겨진 마애불상 등 2건의 불교문화재에 대해 각각 보물지정 예고를 공표했다. 이 두 문화재는 내년 1월 22일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중 보물지정 결과를 알 수 있다. 한편 부산 내인정사에 보관



○<월인석보> 제15. 중인 불교관련 서적 <진언집> <조상경> <염불보권문> <묘법연화경> 등 4종의 서적이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각각 지정됐다. 오종욱 기자

"3세기말 한반도 불교전래"

연세대 사회발전연구 "중 '진서'에 기록"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앞선 3세기 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송복)가 '실존인물 심층을 통해 본 효의 원류탐구'란 주제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관음사 연기설화의 시대적 배경'을 발표한 심층연구팀은 "중국 정사인 <진서(晉書)>에서 3세기말에 이미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됐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한반도의 불교전래와 관련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을 근거로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인 372년에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통해 불상과 불경을 보냈으므로 시작됐고, 백제의 경우 384년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온 데서 유래했다는 게 통설이다. 그러나 연구팀에 따르면 <진서열전>의 <채모전>에는 당시 불교신자인 황제가 널리 부처님의 신통함을 찬양해 이를 널리 펼 것을 명령했는데 신하들이 즉각적으로 반대 상소를 올리고 있으며, 그 내용은 중국 고유의 경전·법도가 아니며 '불교는 동이와 북적의 오랑개 땅에 만연한 풍속'이라고 논쟁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황제인 서진 무제의 재위가 265~290년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한반도에 불교가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양고승전>과 <해고승전>에 등장하는 중국 동진의 도림(314~366) 스님이 고구려 승려에게 편지를 보냈던 기록을 통해서도 불교 전래를 훨씬 이전까지 소급할 수 있고, 삼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육국편 성덕산 관음사 사적' 중 사찰 창건을 312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타당성 있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석림 제34호 발간

동국대 석림회의 논총집인 <석림> 제34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문명대(동국대) 교수의 '한국의 불상 조각', 보광(동국대 교수) 스님의 '석림인의 상' 등 특별 논단과 기고, 이철영(울산과대학) 교수의 '사찰 건축의 수도생활 공간 배치의 시대적 변천 과정', 서치상(동명정보대) 교수의 '통사지정암에 서 보는 우리 건축의 품격' 등의 기획논단이 게재됐다. 이외 '교수는 단' '학인논단' 등이 있다.

불화 조사 보고서 발간

문화재청이 <전국 사찰 소장 불화 조사보고서-마곡사 본·말사 편> 제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성보문화재연구원을 3월부터 11월까지 조계종 6교구 본사 마곡사와 말사에 소장된 불화 181점을 일제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부록으로 '무량사 괘불' '감사 괘불' '광덕사 대웅전 삼세불탱' '마곡사 대광보전 백의 관음벽화' 등의 도판 181점이 수록됐다.

불자와 함께 네트워크 불교세상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부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부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파곤 파곤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 불교정보 접속방법 안내

011 SK Telecom
 6. 여성/문화 > 9. 종교 > 불교정보

016 한통프리텔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019 LG Telecom
 5. 인터넷채널 > 7. 종교 > 불교정보

017 신세기통신
 InfoTouch > 종교 > 불교정보

018 한통닷컴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산사의 불교가 내손안으로!
 이제 모바일에서도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감상하며 스님을 만나거나
 신도간의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다.

불교정보 서비스는 총 7개의 주제속에
 정리된 30여 메뉴를 통해 사찰정보,
 불교인물 검색 등 D/B검색과
 매일매일의 불교뉴스, 공연, 전시,
 법회안내 등을 검색할 수 있다.